

Field Voice >>>

탄소 배출권거래제 2015년 이후로~

현재 정부가 도입하려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산업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여부를 2015년 이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국내 제조업의 원가 상승으로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하거나 철회를 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2월 7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절한 시점에 (탄소) 배출 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 같은 산업계의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건물, 수송, 가정 등에서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통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전력IT의 결실 'K-EMS'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 운영 핵심기술인 에너지관리시스템(K-EMS)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에너지제어 기술 자립의 발판을 마련했다. K-EMS는 전력소비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적절한 수요공급의 조절과 양질의 전력공급 기여, 우리나라 고유의 전력망 특성에 맞는 전력설비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기존의 EMS에서 구축할 수 없었던 지능화된 운영·제어의 틀을 제공해 전력저장장치와 수요반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다. 기대 효과로는 1000억여 원의 외화 지출 방지와 고속철도, 상하수도, 지하철, 고속도로 관리시스템은 물론 빌딩자동화시스템 등 네트워크 산업 모두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K-EMS는 앞으로 전개될 '전기에너지 시대'를 기술과 품질로 뒷받침할 한국 전력IT의 결실인 만큼 제주도에서 실증 중인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국산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